“조선 침략 참회” 이치노헤 쇼코 스님 원적

3월 25일 지병으로 세수 74세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 창립
‘조동종 참사문비’ 조성에 힘써
日조동종, 침략 원조 지속 비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본이 발발한 태평양 전쟁과 조선 침략을 꾸준하게 비판하며 참회를 촉구해 온 일본 조동종 운쇼지(雲祥寺) 주지 이치노헤 쇼코(一戶彰晃, 사진) 스님이 3월 25일 지병으로 원적했다. 세수 74세.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의 원죄를 꾸준히 비판하고 자신이 소속된 종단인 일본 조동종이 전쟁 지원 사실을 폭로 · 지적해온 실천적 선지식이다. 인권운동에도 관심이 많아 ‘사야마 사건을 생각하는 시민집회’ 실행위원, 인권 · 평화단체 ‘촉광’의 이사장으로도 활동했다.

한국에는 2011년 한국 유일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를 지원하는 조직인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동지회)’를 결성하고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치노헤 스님은 동지회를 통해 동국사에 일본 불교의 과오를 참회하는 ‘참사문 비’를 조성했다.

비문의 내용은 1992년 일본 조동종이 발표한 ‘참사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동종의 ‘참사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경책하고 참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참사문의 분량도 방대하고 일부 대목에 대한 사죄는 진정성도 느껴진다.

실제 조동종은 참사문에서 “석가모니 세존의 법맥을 잇는 것을 목표로 삼은 우리 종문은 여러 아시아 민족 침략 전쟁에 대해 성스러운 전쟁이라 긍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폭거를 범했으며, 조선을 종속시키려 했다. 조동종은 그 첨병이 돼 한민족의 일본 동화를 획책하고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됐다”고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이어 “불법을 국가 정책이라는 세속적 법률에 예속시키고 나아가 타민족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침탈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참회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2012년 9월 16일 봉행된 참사문비 제막식에서 이치노헤 스님은 참회사를 통해 통렬히 참회하고 용서를 구했다.

“일본 불교계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본 국가권력에 협력하며 전쟁에 가담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동아시아에 남겼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죄드린다.


일본이 발발한 태평양 전쟁과 조선 침략을 꾸준히 비판해온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이 3월 25일 원적했다. 세수 74세.

일본은 패전이후 충분하게 반성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한일불교교류는 있었지만 불자로서 진정한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우호활동에 그치고 있어 한일 양국 불교계는 의혹과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조동종이 지난 1992년 발표한 참사문이 한국에 건립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늘 동국사에 제막된 참사문비가 일본 불교의 양심으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

이치노헤 스님은 자신이 속한 종단인 일본 조동종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전쟁을 지원해왔는지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를 담은 저서가 〈조동종의 전쟁(2010)〉,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2012)〉다.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는 동국대출판부를 통해 〈조선침략참회기〉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이 발간되기도 했다.

한국에도 소개된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에는 한일 합방부터 일본의 패전까지 조동종이 당시 조선 반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철저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증하고 있다.

조동종 승려 다케다 한시가 1895년 명상황후 시해에 깊이 관련된 사실부터 청일 · 러일전쟁 등에서 종단 승려들이 첨병 역할을 한 것, 한일합방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법요를 봉행하고 전국에 포교소를 개설해 황국신민화에 앞장선 것들을 명백히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현 신라호텔 자리에 이토 히로부미를 현창하기 위한 박문사를 세우는 데 조동종 승려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 자리에서 안중생이 이토에게 사과를 하게 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담았으며, 군산의 수탈사와 함경북도 군사도시 나남의 패전 후 풍경까지 세세히 그려놨다. 또한 군산 동국사의 참사문비를 세우기까지 과정도 생생히 기록했다.

자신의 종단에 대한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까지 저술활동과 언론기고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치노헤 스님은 생전 본지와의 인터뷰(2012년 광복특집)에서 자신의 연구와 저술이 일본불교를 발전시키는 일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의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불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기본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다. 국가나 사회, 교단에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작업들은 일본 불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치노헤 스님은 한국과 일본이 진실한 교류와 상생의 바탕은 일본 정부와 불교계에 참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에 있다고 봤다.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패전 후 일본정부와 불교계는 반성조차 하지 않다.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불제자로서 일본 불교계가 식민지 정책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을 진실되게 참회해야 한다.

전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전쟁과 관련됐던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연구하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불교계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한국불교계에는 일본 불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지금이야말로 이 불신의 벽을 뛰어 넘을 때라고 생각한다.

양쪽 모두 사실을 검증하고, 객관화해야 한다. 그래야 한일 불교교류의 새로운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본지 2012년 광복 특집 인터뷰)

中, MZ세대 사이에 부는 사찰 참배 열풍

사찰 방문 인증 · 향 공양 등 트렌드
불교용품 구입위한 오픈런 행렬도

중국의 MZ세대 사이에서 사찰 여행이 화제다. 지난 3월 22일 중국의 ‘환구시보’는 중국 MZ세대 사이에 부는 사찰 참배 열풍을 보도했다.

사찰 방문, 향 공양, 소셜 미디어 사진 공유가 중국 MZ세대에게 꼭 해야할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사찰에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향 연기가 자욱한 사찰 마당에서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불교용품을 사기도 하며 법당에 향과 공양물을 올리기도 한다.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 사찰 방문 예약은 예년 대비 310% 증가했으며 입장권 구매 고객은 1990~00년대 출생자가 전체 고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2023년 3월 현재까지 ‘사찰’, ‘사원’ 검색량이 586%가 증가하기도 했다. 검색자의 약 44.9%가 18~30세의 청년층으로 밝혀졌다.


베이징 라마 사원에 향 공양을 올리기 위해 줄을 선 중국 MZ세대. 사진출처=환구시보

베이징 옹화궁(雍和宮)의 청년불자 셴 유닝(28세)씨는 “이 절에서 청년층은 내가 유일했으나 지난달부터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는 이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MZ세대는 취직과 승진, 재산 증식을 바라며 공양을 올리고 소원을 빈다. 과거 연애, 결혼을 위해 찾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과 변화가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마 사원에서 피운 향 재로 만든 소원 성취 팔찌가 입소문을 타 경내 불교용품 판매점에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영은사(靈隱寺)에는 이른 아침부터 청년들이 향 공양을 올리기 위해 줄을 서 있기도 한다. 청년들 사이에서 사찰에서 첫 향 공양을 올리면 영험한 효과가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초보 불자를 위한 법당 예절과 향 사르는 법, 공양을 올리는 법 등의 불교 예법과 소원성취 진언 등이 공유되고 있다. 또한 개인 소지품 및 하드 드라이브나 노트북과 같은 기기에 축원을 요청하기도 하며 개인 맞춤 축원기도의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베이징 대학 중어중문학과 장 이우 교수는 “MZ세대 사이에서는 비주류 문화 및 취미가 떠오르고 있으며 사찰 방문 트렌드도 마찬가지”라면서 “유행을 선도하는 인플루언서가 사찰에 방문하여 참배하는 모습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이를 본 또래들이 흥미를 느껴 사찰 방문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Z세대는 종교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 종교 시설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세속적인 삶에 도움을 받길 원해 개인 맞춤 축원, 소원 팔찌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리랑카, 영국 풍 동굴 사원 ‘락키타칸타’

십자가 목걸이 한 불보살
국내외 관광객 몰려들어


거대한 코브라가 볏을 펴고 불법을 수호하는 모습의 락키타칸다 동굴 사원.
사진출처=선데이 옵저버

지난 3월 26일 스리랑카의 영자신문 ‘선데이 옵저버’는 영국 식민지풍 동굴 사원을 소개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221km 떨어진 웰라야 지방에 있는 락키타칸타 동굴 사원은 기원전 1세기경에 이 동굴에서 살았다고 알려진 ‘아라한 붓다락키타’ 스님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고대 동굴 사원은 스리랑카의 마지막 독립 군주국인 칸디안 왕국(1597~1815년)이 예술, 문화, 종교 부흥기를 맞았던 18세기 끝자락의 양식을 품고 있다. 영국 식민지 권력이 절정기에 달했던 19세기 영국의 영향을 받아 개보수하여 오늘날의 독특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법당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상단에는 아치형의 나무 장식이 달렸다.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왕관을 쓴 사자와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유니콘이 있는 영국 왕실 문장이 그려져 있으며 빅토리아 여왕의 사진도 전시돼 있다. 나무 장식에는 영국 왕좌에 대한 존경을 담았다는 문구와 개보수 날짜(1886년 10월 22일)가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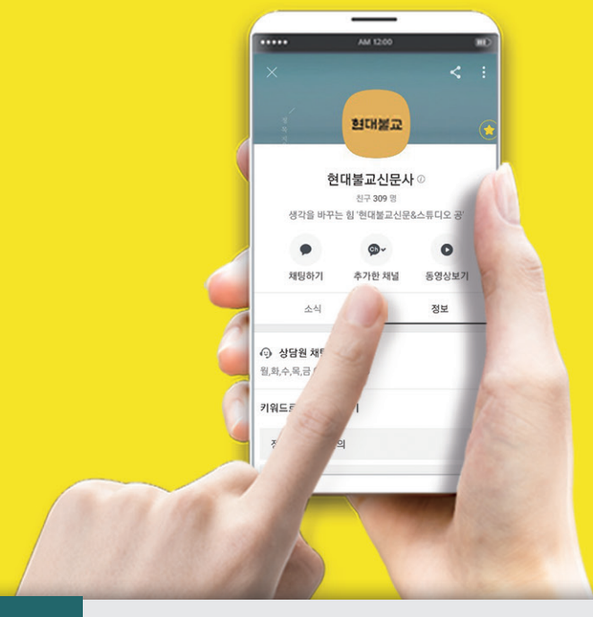
라키타칸다 동굴 사원 주지는 “락키타칸타 동굴 사원은 근교 유명 관광지인 엘라와 라바나 엘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주로 찾아온다”면서 “동굴 사원에서 불교를 세계에 전파하고 정신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으며 우리의 유산이 후세에도 온전히 보전되어 우리 조상들이 일궈낸 번역의 역사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